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 5 pp. 380-391, 2024

https://doi.org/10.5762/KAIS.2024.25.5.38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디지털 전환 시대,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삶의 만족: 디지털 활용 수준의 매개효과

김태용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협동과정, 대한민국 공군

Digital Transformation Era, Middle-Aged and Elderly's Household Type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Usage Levels

Tae-Yong Kim
Program in Science & Technology Studies,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요 약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와 이에 따른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를 조명하며,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활용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와 그 해소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디지털 활용 능력과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디지털 활용 수준을 높임으로써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으로, 55세 이상 중고령자 2,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주요 변수로는 독립변수는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 종속변수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 디지털 활용 수준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이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정한다. 분석 결과,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활용 수준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활용 수준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대한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중고령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digital divide that exists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in an aging society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 types on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with the aim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usage level.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 types on digital usage levels and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data in the Digital Divide 2022 report, which targeted 2,300 individuals aged ≥ 55.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 type was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digital usage level as the mediating variable. The analysis showed that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 types and digital usage levels significantly impacted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dicated that enhancing digital usage level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Furthermore, digital usage level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 types on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suggests that the level of digital usage plays a crucial role in middle-aged and elderly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trategies to overcome the digital divide exhibited by the middle-aged and elderly.

Keywords : Digital Divide, Digital Usage Level, Digital Transformation, Household Type, Lif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Tae-Yong Kim(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Air Force)
email: skty1004@korea.ac.kr
Received March 13, 2024 Revised April 4, 2024
Accepted May 3, 2024 Published May 31, 2024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1]. 이러한 추세는 의료 기술 발전과 평균 수명 증가에 기인한다. 더불어, 정보와 기술 접근의 연령, 성별, 교육 및 경제적 차이로 인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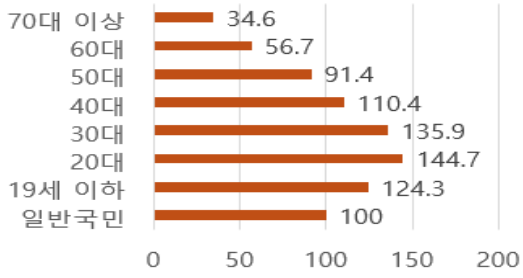
디지털 정보 격차는 접근성을 넘어 지식과 권력의 격차로 확대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2, 3]. 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활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다[6]. 그러나 중고령자가 자녀나 손자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서는 이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6, 7].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 과정이 개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Nagel (2020), L. B. Aknin, et al. (2022), Mabrouk, et al.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8-10].

선행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과 중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 관계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정함으로써, 중고령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가구 유형에 따른 지원 및 디지털 활용 수준을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1.2 연구 문제 및 가설

많은 선행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디지털 정보 격차를 강조하며, 중고령자를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으로 지적한다. 실제로 NIA (2020)에 따르면,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이 10대는 100%, 20대, 30대는 99.9%, 40대, 50대는 99.8%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60대는 91.5%로 다소 감소하고, 70대 이상은 40.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11]. 또한, Fig. 1을 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활용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50대부터 디지털 활용 수준이 10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 이를 통해, 50대는 정보화 시대를 경험한 세대로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상대적으로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과 신기술 적응 및 활용에 있어 세대 간 격차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ource: 2022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Fig. 1. Digital Usage Level by Ages

이처럼 디지털 정보 및 서비스 활용이 제한되어 중고령자들은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 창출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13]. 이러한 중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는 디지털과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젊은 세대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6, 7].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시켰으며, 이로인해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이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다음 Fig. 2와 같은 연구모델과 연구 문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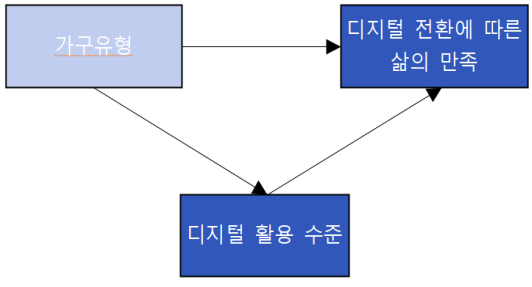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연구 문제〉

-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 관계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연구가설〉

H1: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은 디지털 활용 수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중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중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가구 유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가구 유형과 디지털 활용 수준

디지털 접근, 디지털 역량, 디지털 활용으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12].

디지털 접근은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보유 여부,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보유와 상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지를 측정한다[12].

디지털 역량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컴퓨터와 모바일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으로 측정하며, 디지털 활용은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을 활용 수준을 나타내며, 유선 및 무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여부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가능 수준을 측정한다[12].

디지털 활용 수준은 컴퓨터 및 모바일 등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과 심화 활용 등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의 실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활용 수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중고령자 중에서 자녀나 손자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 동거 세대 가구의 디지털 활용 수준이 노인 단독 세대 가구의 디지털 활용 수준보다 높다. 따라서, 중고령자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와 그들의 가구 유형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B. C. Shia (2013)는 디지털 활용 수준이 낮은 중고령자는 가장 편리하고 직접적인 방법인 자녀로부터 디지털 활용 능력을 습득하며, 자녀의 디지털 활용 수준에 따라 부모의 디지털 활용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였다[14]. 또한, B. A. Eriksen (2011)은 가구 유형이 인터넷 사용과 IT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인터넷 접속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터넷 사용량이 많으며, 더 다양한 IT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15].

J. D. Kwon, et al. (2012)는 중고령자는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유지와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이러한 인터넷 활용은 삶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며, 가족과 지인의 격려를 통하여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였다[16].

Y. S. Oh (2018)의 연구에서 젊은 층과 같이 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이 중고령자만 사는 경우보다 이메일과 인스턴트 메신저, 데이터 기반 음성통화 등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T. Y. Kim, et al. (2022)은 중고령자가 1세대 가구 유형과 젊은 세대와 함께 사는 2, 3세대 가구 유형은 디지털 기술 사용과 정보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6]. 1세대 중고령자들은 종종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젊은 세대와 함께 사는 중고령자들은 보다 쉽게 디지털 기술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 그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6].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1.2 디지털 활용 수준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상 관련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을 높이는 것이 디지털 정보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접촉이 일반화되면서, 정부 및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18].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디지털 전환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19].

중고령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일상에 적용하여, 삶의 변화를 체

감하고 이를 수용하게 된다[16].

H. R. Shin, et al. (2020)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정보 제공과 약국의 마스크 재고 상황 알림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령자들은 여전히 정보를 오프라인에서만 찾으려 하며, 이에 따라 실제로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20].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양상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며, 중고령자의 욕구 및 디지털 활용 수준을 파악하여 단계에 따른 디지털 정보화 수준 강화를 위해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1.3 가구 유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는 비접촉이 일반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과 관련하여, Mabrouk, et al. (2022)은 디지털 학습이 시간적 유연성을 높이고 기존 학습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 교육 리소스를 얻을 수 있어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10]. Nagel (2020)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자와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만족을 비교한 결과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만족이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8].

그러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과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H. R. Shin, et al. (2020)의 질적 연구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중고령자에 비해 혼자 사는 중고령자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서비스의 유용함을 더욱 느꼈다고 하였다[20]. 이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는 친구나 가족이 중고령자가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이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관계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의 매개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디지털 활용 수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UN은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중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6, 7, 21, 22].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는 전국의 장애인, 농어민, 북한 이주민 등을 포함한 총 15,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층화확률비례추출법을 사용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55세 이상의 중고령자 2,3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고령자 2,300개의 표본 중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혹은 부모, 형제와 거주하는 55세 이상을 노인 단독 가구로 정의하였으며, 자녀 혹은 손자녀 등과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손자녀 동거 가구로 정의하여 분석에 사용한다[6, 7, 23].

3.2 사용 변인

3.2.1 인구통계학적 변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 학력, 거주지역이 디지털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6, 7, 21, 22, 24-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 학력, 거주지역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성별은 남성을 1로, 여성을 0으로, 거주지역은 동지역을 1로, 읍면지역을 0으로 분석한다. 연령과 학력은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활용한다. 상관분석에서는 이들을 연속변수로 활용하고, 매개변인 검정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구간별 영향력을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연령

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학력은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3.2.2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노인 단독 가구, 손자녀 동거 여부와 같은 가구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14, 15, 28-30].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2,300개의 표본을 분석하여, 다른 세대원과 거주하지 않고, 혼자 거주하고 있는 단독세대원이나 자녀 및 손자녀와 같은 젊은 세대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배우자 혹은 부모, 형제와 거주하는 대상을 노인 단독 가구로 정의한다. 또한, 자녀 혹은 손자와 거주하거나, 배우자 혹은 부모, 형제와 거주하고, 자녀 또는 손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손자녀 동거 가구로 정의하여 분석에 사용한다[6, 7, 23].

3.2.3 디지털 활용 수준

디지털 활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1개 문항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평가하는 3개 문항, 그리고 인터넷 활용 심화 정도를 파악하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12]. 인터넷 이용 여부는 최근 인터넷 사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되었으며,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은 검색 및 이메일 사용, 콘텐츠 서비스, 사회관계 및 정보 공유 서비스,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3개의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이 문항들은 PC와 모바일 기기에서의 사용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리커트 4점 척도를 이용해 평가되었다[12]. 인터넷 활용 심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보생산 및 공유, 네트워킹 활동, 사회참여, 경제활동의 정도를 평가하는 4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들 문항은 PC와 모바일 기기 사용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인터넷 활용 심화 정도를 평가한다[12].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에 0.4의 가중치를, 서비스 이용 다양성에도 0.4의 가중치를, 그리고 인터넷 활용 심화 정도에는 0.2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활용 수준을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중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하였다.

디지털 활용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 중 최근 인터넷 이용 여부를 묻는 1개 문항을 제외하고, 리커트 4점 척도를 통해 확인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문항 3개와 인터넷 활용 심화정도 문항 4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88을 보인다.

디지털 활용 수준은 상관분석에서는 연속변수로 활용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변인 검정에서는 변수의 구간별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0점~25점, 26점~50점, 51점~75점, 76점~100점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한다.

3.2.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4문항을 사용하였다. 디지털 전환으로 여가 활동의 기회가 많아졌는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더 빨리 알게 되었는지, 새로운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알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는지, 원격근무나 모바일 학습 등으로 인해 업무나 학업의 효율성이 높아졌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2].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대한 설문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11을 보인다.

3.3 연구모델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55세 이상 중고령자 2,300명을 대상으로, 학력, 성별, 연령, 거주지를 통제 변수로 설정해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 및 디지털 활용 수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모델은 Fig. 2에 나타난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기본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변수 간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통한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다. 셋째,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활용 수준의 매개효과를 R. M. Baron and D. A. Kenny(1986)의 방법을 사용해 분석하고 검정한다[31].

먼저, 중고령자 가구 유형과 디지털 활용 수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후, 가구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확인한다. 그다음,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활용 수준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중고령자 가구 유형의 영향력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대해 유의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활용 수준의 완전한 매개효과를 제시하며, 영향력이 감소하되 유의할 경우 부분 매개 효과를 시사한다. 이 매개효과는 M. E. Sobel (1982)의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통해 추가 평가하며[32],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7.0을 사용한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pec.		Frequency	Percentage (%)
Sex	Male	1,118	48.6
	Female	1,182	51.4
Age	50s	563	24.5
	60s	1,054	45.8
	70s	614	26.7
	Over 80s	69	3.0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312	13.6
	Middle School	483	21.0
	High School	1,185	51.5
	Over Collage	320	13.9
Residence	Urban	1,735	75.4
	Rural	565	24.6
Household Type	One Generations	1,610	70.0
	Two or Three Generations	690	30.0

4.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인 중고령자 2,300명 중 남성은 48.6%인 1,118명, 여성은 51.4%인 1,182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 563명(24.5%), 60대 1,054명(45.8%), 70대 614명(26.7%), 80대 이상 69명(3.0%)이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12명(13.6%), 중학교 졸업 483명(21.0%), 고등학교 졸업 1,185명(51.5%), 대학 이상이 320명(13.9%)이다. 거주지는 동지역 1,735명(75.4%), 읍면지역 565명(24.6%), 가구 유형은 노인 단독 가구가 70.0%인 1,610명, 손자녀 동거 가구가 30.0%인 690명을 나타냈다.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K. Pearson (1895)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조사했다[33]. 연령은 최종학력(r=-.571, p<.001), 거주지역(r=-.091, p<.001), 가구 유형(r=-.384, p<.001), 디지털 활용 수준(r=-.501, p<.00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r=-.394, p<.001)과 음(-)의 상관 관계를, 가구 유형은 학력(r=.271, p<.001), 거주지역(r=.127, p<.001), 디지털 활용 수준(r=.264, p<.00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r=.225, p<.001)과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디지털 활용 수준은 성별(r=.096, p<.001), 학력(r=.529, p<.001), 거주지(r=.120, p<.00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r=.507, p<.001)과 정(+)의 상관 관계를, 삶의 만족은 성별(r=.079, p<.001), 학력(r=.423, p<.001), 거주지(r=-.109, p<.001)와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 성별은 연령, 거주지역, 가구 유형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3 디지털 활용 수준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Model1]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역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여, 디지털 활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Model2]는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을 추가로 포함하여 외생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디지털 활용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Sex	Age	Education	Residence	HH. Typ.	Dig. Usage	DX Sat.
Sex	1						
Age	.030	1					
Education	.185***	-.571***	1				
Residence	.005	-.091***	.140***	1			
HH. Typ.	.013	-.384***	.271***	.127***	1		
Dig. Usage	.096***	-.501***	.529***	.120***	.264***	1	
DX Sat.	.079***	-.394***	.423***	.109***	.225***	.507***	1

***상관관계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Table 3. Effectiveness of Household Type on Digital Usage Level

		Model 1			Model 2		
		SE	β	t	SE	β	t
	Constant	.099		16.466***	.099		16.142***
Sex	Male	.031	.014	.736	.031	.015	.804
Age	50s	.040	.150	7.551***	.041	.127	6.169***
	70s	.041	-.104	-4.828***	.041	-.095	-4.379***
	Over 80s	.096	-.103	-5.249***	.096	-.102	-5.247***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056	-.132	-5.820***	.056	-.133	-5.897***
	High School	.042	.137	5.506***	.042	.133	5.350***
	Over Collage	.057	.314	13.705***	.057	.303	13.115***
Residence	Rural	.036	-.061	-3.330**	.036	-.053	-2.894**
HH. Typ.	Two or Three Generations				.037	.078	3.909***
Model Summary	R2	.275			.279		
	Adj. R2	.272			.277		
	R2 Change	.275			.005		
	F(p)	105.661***			96.218***		
	Durbin-Watson				1.054		

*p<.05, **<.01, ***<.001
Reference group: Sex=Female, Age=60s, Edu=Middle School, Residence=Urban

Table 4. Effectiveness of Household Type on DX Sat.

		Model 1			Model 2		
		SE	β	t	SE	β	t
	Constant	.107		18.663***	.107		18.336***
Sex	Male	.034	.013	.688	.033	.015	.768
Age	50s	.042	.086	4.182***	.044	.061	2.881**
	70s	.044	-.118	-5.336***	.044	-.108	-4.865***
	Over 80s	.104	-.111	-5.517***	.104	-.111	-5.510***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060	-.120	-5.145***	.060	-.121	-5.222***
	High School	.046	.173	6.700***	.046	.169	6.550***
	Over Collage	.061	.242	10.116***	.061	.228	9.509***
Residence	Rural	.039	-.049	-2.625***	.039	-.041	-2.174*
HH. Typ.	Two or Three Generations				.040	.083	4.043***
Model Summary	R2	.210			.215		
	Adj. R2	.207			.212		
	R2 Change	.210			.005		
	F(p)	75.984***			69.811***		
	Durbin-Watson				1.713		

*p<.05, **<.01, ***<.001
Reference group: Sex=Female, Age=60s, Edu=Middle School, Residence=Urban

Table 3에서 [Model1]과 [Model2]는 각각 27.5%와 27.9%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디지털 활용 수준에 대해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0.5%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으며, [Model1], [Model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Model2]에 따르면, 50대(β=.127, p<.001), 70대(β=-.095, p<.001), 80대 이상(β=.102, p<.001), 초등졸 이하(β=-.133, p<.001), 고졸(β=.133, p<.001), 대졸(=.303, p<.001), 읍면(β=-.053, p<.01), 손자녀 동거 세대(β=.078, P<.001)가 디지털 활용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에서 [Model1]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역을 통제 변수로 적용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을 파악하였고, [Model2]는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 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여 외생변수 통제한 상태에서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Table 4에서 [Model1]과 [Model2]는 각각 21.0%와 21.5%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대해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0.5%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으며, [Model1], [Model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Model2]에 따르면, 50대(β=.061, p<.01), 70대(β=-.108, p<.001), 80대 이상(β=-.111, p<.001), 초등졸 이하(β=-.121, p<.001), 고졸(β=.169, p<.001), 대졸 이상(β=.228, p<.001), 읍면(β=-.041, p<.05), 손자녀 동거 세대(β=.083, p<.001)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종속변수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5에서 [Model1]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와 같은 통제변수를 포함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Model2]는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활용 수준을 동시에 추가로 적용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에도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활용 수준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Table 5에서 [Model1]과 [Model2]는 각각 20.8%,

Table 5. Effectiveness of HH Type and Dig. Usage Level on DX Sat.

		Model 1			Model 2		
		SE	β	t	SE	β	t
	Constant	.046		56.025***	.064		28.315
Sex	Male	.034	.014	.731	.032	.010	.570
Age	50s	.043	.083	3.982***	.043	.018	.854
	70s	.045	-.118	-5.259***	.043	-.078	-3.604***
	Over 80s	.105	-.112	-5.470***	.100	-.077	-3.981***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061	-.120	-5.075***	.058	-.077	-3.420**
	High School	.046	.171	6.566***	.044	.122	4.941***
	Over Collage	.062	.241	10.034***	.062	.128	5.396***
Residence	Rural	.039	-.049	-2.556*	.038	-.023	-1.283
HH. Typ.	Two or Three Generations				.039	.052	2.620**
Dig. Usage	Dig. Usage				.022	.333	15.865***
Model Summary	R2	.208			.292		
	Adj. R2	.205			.289		
	R2 Change	.208			.084		
	F(p)	73.2364***			92.269***		
	Durbin-Watson				1.779		

*p<.05, **<.01, ***<.001
Reference group: Sex=Female, Age=60s, Edu=Middle School, Residence=Urban

29.2%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대해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활용 수준이 8.4%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Model1], [Model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Model2]에 따르면, 70대(β=-.078, p<.001), 80대 이상(β=-.077, p<.001), 초등졸 이하(β=-.077, p<.01), 고졸(β=.122, p<.001), 대졸 이상(β=.128, p<.001),

손자녀 동거 세대(β=.052, p<.01), 디지털 활용 수준(β=.333, p<.001)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매개변인인 디지털 활용 수준이 종속변인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2를 통해,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 간의 관계가 여전히 유의하였으므로,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 사이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이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M. E. Sobel (1982)의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32].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의 매개효과를 계산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Z=3.80, p<.001).

5. 결론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시한다.

특히 젊은 세대와 함께 사는 중고령자가 디지털 활용 수준이 높고, 이는 여가 활동 증가, 신속한 정보 접근, 사회적 교류 확대, 업무 및 학습 효율성 향상 등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을 긍정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중고령자 삶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별로, 디지털 활용 수준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활용 수준의 매개효과를 확인했다.

첫째,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활용 수준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노인 단독 가구보다 손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디지털 활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6, 14, 15, 28, 29, 34].

둘째,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중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동거 가구 중고령자가 디지털 활용 수준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이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디지털 활용 수준의 부분 매개 역할을 통해, 중고령자가 디지털 기술의 능숙한 활용이 중고령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활용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중고령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과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중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족 단위의 디지털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활용 수준을 가진 중고령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고령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디지털 포용성을 증진하는 정책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중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중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회관, 노인복지센터와 같은 노인 사회복지시설과 더불어 주민센터, 국공립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중고령자가 접근하기 쉽고, 거부감 없는 환경에서 정보화 교육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 단독 가구를 손자녀 동거 가구와 유사하게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구체적

으로, 노인 단독 가구에 젊은 세대가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노인 단독 가구와 젊은 세대가 통합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사업을 시행하여, 노인 단독 가구를 손자녀 동거 가구 유형이 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를 통한 중고령자의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며, 높은 임대료에 따른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셋째, 중고령자들과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단독 가구의 디지털 활용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고령자들이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도와줄 젊은 세대의 지원이 디지털 활용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활동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혹은 사회복지시설 취업과 관련하여 가점 부과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와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 개발 시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방안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연구는 국가 통계 자료인 2022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진행되어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22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의 초점이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에만 두고 수집된 자료가 아니므로, 2차 자료의 원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연구 대상 중 노인 단독 가구에서 중고령자의 독거 여부, 배우자 동거 여부, 부모 동거 여부 등으로 노인 단독 가구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50대 중고령자가 포함되어, 해당 연령대의 복잡한 생애주기와 가족 구조의 다양성, 특히 자녀의 나이에 따른 독립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많은 50대 중고령자가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결정할 생애 단계에 있지 않거나, 자녀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동거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대한 결정 요인이 되는 자녀의 나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중고령자의 소득수준이나 직업과 같은 요소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과 디지털 활용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령자가 사무직 종사 경험에 따라 디지털기기 등에 대한 활용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본 연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여가 활동의 기회가 많아졌는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더 빨리 알게됐는지, 새로운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알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는지, 원격근무나 모바일 학습 등으로 인해 업무나 학업의 효율성이 높아졌는지 등과 같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에 대하여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관계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과 더불어 디지털 활용 수준이 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디지털 교육 및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중고령자가 디지털 사회의 활발한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22 ~ 2072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White Paper, Statistics Korea, Korea, pp.12-13.

[2] Y. J. Suh, "Structuring the digital information gap and making it a social problem",*Information Society & Media*. No.2, pp. 68-87, 2000

[3] J. Y. Yoon and S. H. Yi, "The Necessity of Service Design as Social Capital for the Class of Digital Divide -focused on the seniors` using the internet and their alienation from the internet-",*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Vol.14, No.4, pp. 193-198, 2011

[4] Y. J. Sung, W. W. Lee, G. H. Seo, J. S. Lim, et al., "The Correlations between Cognitive Ability and KIOSK Usage Ability of the Elderly",*The Journal of Korea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Vol.11, No.2, pp. 135-142, 2019.
DOI: http://doi.org/10.34264/jkafa.2019.11.2.135

[5] S. W. Hwang and H. S. Kim, "A Study on the User Experience of Unmanned Order Payment Kiosk in Fast Food Stores",*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20, No.8, pp. 1491-1501, 2019
DOI: http://dx.doi.org/10.9728/dcs.2019.20.8.1491

[6] T. Y. Kim, H. J. Choi, and J. W. Lee, "The Effect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 Type on Change in the Perception of Digital Technology during COVID19: The Mediating Effect of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3, pp. 372-382,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3.372

[7] M. H. Kim, Y. J. Nam, and S. A. Sun,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Capacity between the Family Structure and Use of E-government Services of Middle and Older Aged Adults",*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5, pp. 69-79,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5.069

[8] Nagel, L., "The influence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work",*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Vol.40, No.9/10, pp. 861-875, 2020.
DOI: https://doi.org/10.1108/ijssp-07-2020-0323

[9] L. B. Aknin, J. E. De Neve, E. W. Dunn, D. E. Fancourt, et al., "Mental Health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COVID-19 Pandemic: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Moving Forward",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No.4, 2022.
DOI: https://doi.org/10.1177/17456916211029964

[10] Mabrouk, F., M. M. Mekni, and A. Aldawish, "Digital Learning,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tress Due to COVID-19 Emergency: Case Study Among Female Saudi University Students",*Frontiers in Psychology*. Vol.13, 2022.
DOI: https://doi.org/10.3389/fpsyg.2022.875608

[11] NIA, "Summary of the 2020 Internet Use Survey", Summary of the 2020 Internet Use Survey. 2020

[12] NIA, "2022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in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2023.

[13] H. J. Lee and M. K. Park, "Older Adults' Digital Divide and Life Satisfaction : Comparing Mobile and PC-based Digital Divide",*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29, No.2, pp. 209-241, 2020
DOI: http://doi.org/10.22897/kipajn.2020.29.2.007

[14] B. C. Shia, "The study of analyzing digital divide with data mining technique and setting up the cloud-platform to improve it". 2013

[15] B. A. Eriksen, "How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2011

[16] J. D. Kwon, Y. J. Kim, and T. Y. Um,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Internet Use in Their Daily Lives and Its Meaning among Older Adults",*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2, No.3, pp. 835-850, 2012

[17] Y. S. Oh, "Elderly people's ability to use media according to family composition",*KISDI STAT Report*. Vol. 18-02, 2018

[18] J. I. Ahn, H. Y. Jin, and Lim, G.G., "A Study on the Change of Digital New Deal Perception in Post-Corona: Focused on Digital Transformatio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pp. 797-799, 2020

[19] C. H. Kim, "The Effect of Perception For Digital Transformation on Acceptance of Digital Technology - Focusing Moderating Role of COVID19",*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19, No.2, pp. 1-10, 2021
DOI: http://doi.org/10.22678/JIC.2021.19.2.001

[20] H. R. Shin, T. Y. Yoon, S. K. Kim, and Y. S. Kim, "An Exploratory Study on Changes in Daily Life of the Elderly amid COVID-19 - Focusing on Technology Use and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Elderly Welfare Cent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5, No.4, pp. 207-232, 2020.
DOI: http://doi.org/10.21194/kjgsw.75.4.202012.207

[21] S. K. Kim, Y. S. Kim, and H. R. Shin, "Analysis on Predictive Factors of Digital Information Capability Level: Focused on Gender Difference",*Information Society & Media*. Vol.21, No.2, pp. 21-43, 2020.
DOI: http://doi.org/10.52558/ISM.2020.08.21.2.21

[22] S. K. Kim, H. R. Shin, and Y. S.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Motivation for, Attitude toward, and Performance from the Use of Digital Devices in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Focusing on Path Analyses",*Informatization Policy*. Vol.27, No.3, pp. 39-55, 2020.
DOI: http://doi.org/10.22693/NIAIP.2020.27.3.039

[2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lderly Status Survey Report",*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

[24] T. N. Friemel, "The digital divide has grown old: Determinants of a digital divide among seniors",*New Media & Society*. Vol.18, No.2, pp. 313-331, 2016.
DOI: https://doi.org/10.1177/1461444814538648

[25] H. J. Hwang and Y. S. Hwang, "Gaps and Reasons of Digital Divide within the Elderly in Korea : Focusing on Household Composition",*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24, No.3, pp. 359-386, 2017.
DOI: http://doi.org/10.46415/jss.2017.09.24.3.359

[26] K. H. Ju, D. S. Kim, and J. H. Kim,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Digital Divide on Elderly and Difference of Gender",*Social Welfare Policy*. Vol.45, No.2, pp. 95-121, 2018.
DOI: http://doi.org/10.15855/swp.2018.45.2.95

[27] J. H. Yim, H. J. Lee, and J. H. Lee, "A Study on Digital Divide Influence Factors of the Elderly: Comparison between Baby Boomer and Elderly",*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9, pp. 475-485, 2020.
DOI: http://doi.org/10.5392/JKCA.2020.20.09.475

[28] B. J. Jeon and H. J. Gwak,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Use and Quality of Life by Household Types of Elderl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 213-220,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10.213

[29] H. Dou and S. Wan. "Reducing the Digital Divide: What Have Adult Children Done for Their Middle-aged Parents?" in *2020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ties Education and Social Sciences (ICHESS 2020)*. Atlantis Press. 2020.

[30] T. Wang, X. Guo, and T. Wu, "Social Capital and Digital Divide: Implications for Mobile Health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Healthcare Engineering*. Vol.2021, 2021.
DOI: https://doi.org/10.1155/2021/6651786

[31]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 1173-1182, 1986.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3514.51.6.1173

[32]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13, pp. 290-312, 1982.
DOI: https://doi.org/10.2307/270723

[33] K. Pearson, "Note on Regression and Inheritance in the Case of Two Parents",*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I*. Vol.58, pp. 240-242, 1895.
DOI: https://doi.org/10.1098/rspl.1895.0041

[34] C. H. Wang and C. L. Wu, "Bridging the digital divide: the smart TV as a platform for digital literacy among the elderly",*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pp. 1-14, 2021.
DOI: https://doi.org/10.1080/0144929X.2021.1934732

김 태 용(Tae-Yong Kim) [준회원]

- 2016년 8월 : 국민대학교 기업경영학부 (경영학사)
- 2022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술경영학협동과정 (경영학석사)
- 2023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기술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2006년 4월 ~ 현재 : 대한민국 공군

〈관심분야〉
기술경영, 스타트업, 정보격차, 국방경영정보시스템